

## Fe가 치환된 Ni-cromate의 뢴스바우어 연구

박승일\*, 명보라, 강지훈, 고태준, 심인보, 김삼진, 김철성

국민대학교, 나노전자물리학과, 서울 136-702

### 1. 서론

최근 Co-cromate에서 Cr 이온에 스핀 방향과 온도에 따른 정렬에 의해 강전기성을 뜨는 것이 보고 [1]된 이후, 스피넬 구조의 cromate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Ni-cromate( $\text{NiCr}_2\text{O}_4$ )의 경우, Fe 이온의 치환량에 따라 다양한 결정학적 및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text{NiCr}_2\text{O}_4$ 에 Fe를 치환한  $\text{NiCr}_{1.9}\text{Fe}_{0.1}\text{O}_4$  시료를 제조하여, 시료 진동형 자화측정기(VSM)과 뢴스바우어 분광 분석기를 이용하여 물질의 자기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 2. 실험방법

단일상의  $\text{NiCr}_{1.9}\text{Fe}_{0.1}\text{O}_4$  시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고순도의 Ni-natride, Cr-natride,  $^{57}\text{Fe}$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질산과 아세트산 및 에탄올을 이용하여 물질을 용해 혼합하여 건조한 후, 최종적으로 1000 °C에서 12시간 열처리하였다. 단일상의 확인을 위하여 상온에서 x-선 회절도를 취하였으며, 자기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VSM 및 뢴스바우어 분광 측정을 하였다.  $\text{NiCr}_{1.9}\text{Fe}_{0.1}\text{O}_4$ 의 뢴스바우어 분광 스펙트럼은 4.2 K에서 상온에 구간 중에서 다양한 온도영역에서 측정하였다.

### 3. 실험결과 및 토의

단일상의  $\text{NiCr}_{1.9}\text{Fe}_{0.1}\text{O}_4$  시료는 졸겔법에 의해 합성하였다.  $\text{NiCr}_2\text{O}_4$ 의 경우, 상온에서의 결정구조는 정방정의 구조이지만 302 K 이상에서는 입방정의 정스피넬 구조이다. Fe 이온의 치환에 의해 결정학적 상변이 온도가 상온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Fig. 1은  $\text{NiCr}_{1.9}\text{Fe}_{0.1}\text{O}_4$  시료의 상온에서의 x-선 회절도이다. x-선 회절도 분석 결과, 결정구조는 입방정의 정스피넬 구조를 갖음을 알 수 있었으며, Rietveld 분석에 의해 격자상수  $a_0 = 8.319 \text{ \AA}$ 로 결정하였고, 이 때 Bragg 인자  $R$ 과  $R_f$ 는 2.56 %와 2.36 %이었다.

외부 자기장을 가하지 않고 온도를 하강하여 100 Oe 낮은 외부자기장을 가한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면서(ZFC) 그리고 100 Oe의 외부자기장을 가하면서 온도를 내리면서(FC) 자화곡선을 측정하였다. 이로부터 자기적 특성 전이 온도인 Néel 온도는 135 K로 결정하였다. 이는 뢴스방우어 분광 분석에 의해 결정한 Néel 온도와 일치한다.

Fig. 2는  $\text{NiCr}_{1.9}\text{Fe}_{0.1}\text{O}_4$ 의 4.2 K에서 Néel 온도인 135 K 사이에 다양한 온도영역에서 취한 뢴스바우어 분광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뢴스바우어 분광 분석은 Cr 이온이 스핀 방향에 따라 2 개의 자기적 구조를 갖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치환된 Fe 이온이 Cr 이온자리에 균일하게 치환되었다고 가정하여, 면적비를 50 : 50으로 맞추어 분석하였다. 4.2 K의 경우, 초미세 자기장( $H_{hf}$ )의 값은 각각 488 kOe와 472 kOe이었으며, 이성질체 이동값( $\delta$ )은 0.29 mm/s와 0.28 mm/s로 Fe 이온의 상태가 +3가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기사중극자 상호작용( $\Delta E_{QS}$ )에 경우, Néel 온도 이하 이하에서는 각각 거의 0 mm/s의 값을 갖지만, Néel 온도 이상에서는 큰 값을 갖게 되어 Néel 온도인 135 K에서의 뢴스바우어 스펙트럼은 Fig. 2에서와 같이 이중선의 분광스펙트럼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든 온도 영역에서 이성질체 이동값은 Fe 이온이 +3 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온도에 따른 뢴스바우어 분석 결과 공명 흡수 스펙트럼의 선폭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정학적

양-테이러 일그러짐에 의한 완화 현상에 의한 영향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Néel 온도 이하에서 자기적 이방성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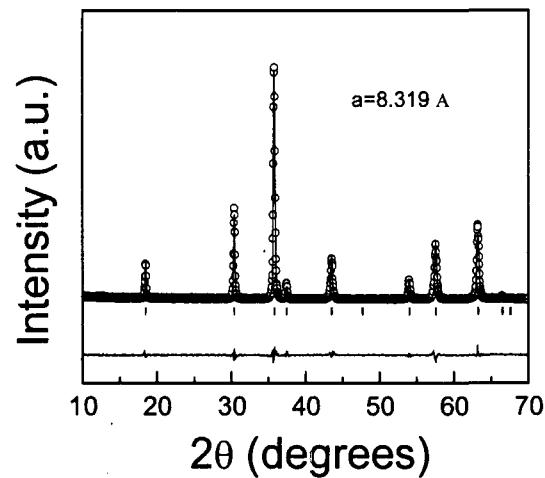


Fig. 1. Th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ext{NiCr}_{1.9}\text{Fe}_{0.1}\text{O}_4$  at room temp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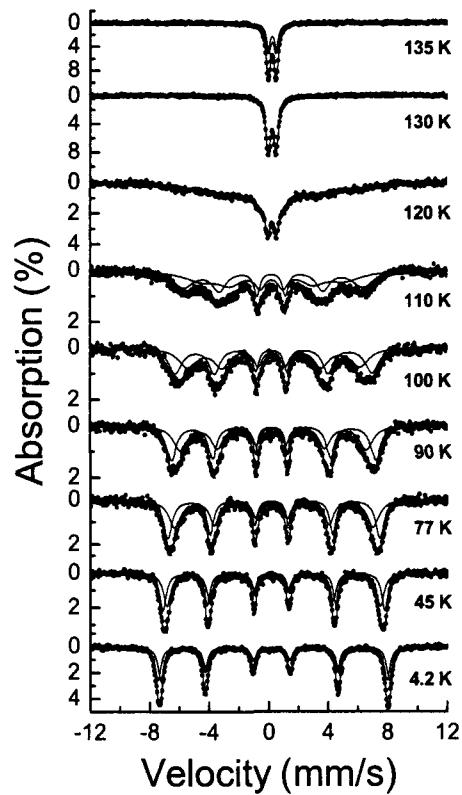


Fig. 2. The Mössbauer spectra for the  $\text{NiCr}_{1.9}\text{Fe}_{0.1}\text{O}_4$  at various temperatures.

#### 4. 참고문헌

- [1] K. Tomiyasu etc. al., Phys. Rev. B **70**, 214434 (2004)
- [2] R. J. Arnott etc. al., J. Phys. Chem. Solids **25**, 161(1964)